

박지성-조재진-설기현 선봉

스리톱·포백으로 이란 꺾는다

오늘밤 8시 상암별서 아시안컵 B조 예선

코리안 J리거 대표주자 조재진(시미즈)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듀오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설기현(레딩 FC)이 '난적' 이란 격파의 선봉에 선다.

김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2일 오후 8시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07 아시안컵축구 B조 예선 3차전 이란과 홈 경기를 갖는다.

현재 B조 순위는 한국이 2승(승점 6)으로 선두, 이란 1승1무(승점 4), 시리아 1승1무1패(승점 4), 대만 3패다.

네 팀 가운데 두 팀이 본선에 오르는 방식으로 지난 달 17일(한국시간) 이란이 테헤란 홈 경기에서 시리아와 비겨 자칫 혼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란이 유럽과 6명에 총동원령을 내린 것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도 홈에서 이란에 패한다면 버랑 골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코엘류호 시절인 2003년 아시안컵 예선에서 오만, 베트남에

잇따라 무너지는 '오만 쇼크'를 경험한 적이 있다. 두 번 실수를 뒤흔어헤선 안될 상황이다.

지난 달 16일 대만 원정에서 손쉬운 첫 승을 챙긴 베어백 감독은 이번 경기가 실질적인 데뷔전이다.

특히 대만과 첫 경기에서 3-0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무색무취(無色無臭)'의 밋밋한 전술이라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안방 데뷔전에서 베어백 축구의 확실한 '색깔'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란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45위로 한국(52위)보다 높다. 상대 전적에선 한국이 8승3무7패로 근소하게 앞서지만 백중세다.

베어백 감독은 지난 달 29일 명단 발표 때부터 포백(4-back) 시스템을 사실상 확정해 4-3-3 포메이션을 구사한다. 스리톱(3-top) 라인에는 전원 해외파를 출격시킬 전망이다. 중앙 윙폼에는 이동국(포항)이 아직



재활 중이고 안정완까지 빠진 마당이라 조재진의 선발 출격이 확실시된다.

조재진은 '특점이 입국 목적'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K-리그에서 눈에 띄게 살아난 정조국(서울)이 뒤를 받친다.

좌·우에는 박지성과 설기현이 포진한다.

박지성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와 좌·우 윙포워드를 소화할 수 있지만 공격 화력을 높이기 위해 일단 전방에 배치한다는 게 베어백 감독의 카드다.

세 번째 프리미어리거로 연착륙한 설기현은 컨디션이 최고조에 올라 최우선 순위로 선발 기회를 잡았다.

K-리그에서 두 경기 연속골을 뽑아낸 이천수(울산)는 주중 성남전에서 타박상을 당해 조커 투입 쪽에 무게가 실린다.

문제는 공격형 미드필더. 백지훈(수원), 김두현(성남)의 주 전공이지만 베어백 감독은 경험을 중시해 이을용(FC 서울)에게 중책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뒤를 받치는 더블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독일월드컵 전부터 발을 맞춰온 김남일(수원), 이호(제니트)가 나란히 포진한다.

포백에는 왼쪽부터 김동진(제니트), 김진규(이와타), 김영철(성남), 송종국(수원)이 출격한다.

수문장에는 컨디션을 회복한 이은재(수원)가 다시 돌아온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6세이하 청소년축구 2년 정벌 나서 내일 싱가포르와 A조 1차전

박경훈 감독이 이끄는 한국 16세 이하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아시아 정벌에 나선다. 한국은 3일 오후 6시(이하 한국시간) 싱가포르 잘란 베사르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싱가포르와 2006 아시아축구연맹(AFC) 청소년(U-17)선수권대회 A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이번 대회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2007 세계청소년(U-17)선수권대회 아시아 지역 예선을 겸해 열리며, 16개 팀이 4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1, 2위 팀이 8강 토너먼트를 치른다. 내년 세계 대회 진출권은 개최국으로서 자동 출전하는 한국을 제외한 이번 상위 4개 팀에 돌아간다.

1984년부터 2년마다 열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 대회에서 1986년과 2002년에 이어 3회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은 5일 네덜, 7일 일본과 차례로 대결한다. 한국으로서는 8강 진출은 무난하고 일본과 조 1, 2위를 다투는 전망이다.

이번 대회는 한국과 함께 역대 2회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한 차례 정상에 오른 일본 등이 치열한 경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일본 대회에서 중국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한 북한(C조)의 선전도 기대된다. 한편 SBS스포츠채널은 이번 대회 한국의 전 경기를 중계방송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영표 입지 불안

토트넘 수비수 심봉다 영입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명문 AS 로마로 이적을 거부했던 이영표(29)의 소속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파가 프랑스 대표 출신 오른쪽 윙백 파스칼 심봉다(27·위건 어슬레틱)를 영입했다고 BBC가 1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올 시즌부터 카메룬 출신 이적

생 베누아 아수 에코토에게 주 포지션인 왼쪽 윙백 자리를 내주고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겼던 이영표는 더욱 치열한 주전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심봉다의 이적료로 600만 파운드(약 109억 원)를 썼으며 이는 위건 창단 이래 최고 이적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건은 2005년 7월 프랑스 리그1 SC바스티아에서 뛰던 심봉다를 데려오면서 50만 파운드(약 9억1천만 원)의 이적료를 썼는데, 심봉다가 맹활약을 펼친 덕에 투자한 돈의 12배를 벌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찬호 아빠 됐다

지난달 31일 말 출산

장 출혈로 수술을 받았던 박찬호(33·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부상 시련 끝에 귀중한 행운의 선물을 얻었다.

박찬호의 국내 매니지먼트사인 팀 61의 김만섭 대표는 1일 "박찬호 선수의 아내 박리혜씨가 전날 샌디에이고의 한 병원에서 딸을 낳았다.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하다"고 말했다.

지난 해 11월30일 미국 하와이에서 박리혜씨와 결혼식을 올린 박찬호는 아

내 박씨가 2, 3일 후 퇴원하는대로 샌디에이고 집으로 함께 돌아간다.

박찬호는 지난 달 24일 소장 출혈의 원인인 매켄게실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최소 4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오른 상태.

박찬호는 그러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련이 아닌 행운'이라는 글을 올려 "다시 건강을 찾고 건강할 아빠의 모습으로 아기를 만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다"며 2세와 함께 마운드에 돌아오겠다는 강한 복귀 의지를 밝혔었다.

최경주 10언더파 단독 선두 국내무대 시즌 첫 우승 '파란불'

신한동해오픈 2R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이를 연속 5타씩을 줄여 국내 무대 시즌 첫 우승을 향해 순항했다.

최경주는 1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서코스(파72·7천490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신한동해오픈 2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쳐 중간합계 10언더파 134타로 단독 선두에 나섰다. 오후 4시 현재 전반 9개 홀을 치른 최호성(33·삼화저축은행)을 1타차로 제친 최경주는 이로써 두 차례 이 대회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어버리고 올해 들어 첫 우승컵을 들어올릴 체비를 마쳤다.

한국에서 경기를 치를 때면 "찾아주시는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 많이 구사하

게 된다"는 최경주는 첫날 이글 샷에 이어 이날도 환상적인 드롭샷을 선보이는 등 차원높은 플레이를 펼쳤다.

10번 홀에서 경기를 시작한 최경주는 11번 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을 홀 1.2m에 붙여 가볍게 1타를 줄였고 14번 홀(파4)에서 4m 버디 퍼트를 떨어뜨려 앞 조에서 경기를 치른 작년 US오픈 챔피언 마이클 캠벨(뉴질랜드)과 함께 공동선두로 뛰어 올랐다.

16번 홀(파4)에서 1타를 잃어 멈춰섰던 최경주는 18번 홀(파4)에서 3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만회했다.

1번 홀(파5)에서도 쉽게 버디를 챙긴 최경주는 5번 홀(파4)에서는 6m에 이르는 만만치 않은 버디 퍼트를 집어 넣으면서 국내 그린에 완전히 적응했음을 알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포핸드로 가볍게

1일 뉴욕에서 열린 U.S오픈테니스 여자 단식에서 세레나 윌리엄스가 슬로바키아의 다니엘라 한투코바의 공격을 포핸드로 받아 넘기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2일(토)

- PGA투어 도이치 뱅크 챔피언십 1R (06:00·SBS스포츠)
메이저리그(클리블랜드-텍사스)(09:25·Xports)
부산갑 4개국 국제청소년축구(14:55·KBS1)
월드그랑프리 배구대회(대한민국-미국)(16:00·KBS SKY SPORTS)
프로야구(KIA-SK)(18:00·KBS SKY SPORTS), <한화-두산>(18:00·SBS 스포츠), <LG-삼성>(18:30·MBC ESPN)
아시안컵 축구예선(한국-이란)(19:

50·KBS2)

- 9월3일(일)
US오픈 테니스(00:00·Xports)
유로2008 예선(잉글랜드-안도라)(01:00·MBC ESPN)
신한동해오픈 3R(02:00·KBS2)
PGA투어 도이치 뱅크 챔피언십 2R(04:00·SBS스포츠)
메이저리그(시애틀-탬파베이)(08:05·Xports)
신한동해오픈 4R(13:35·KBS2)
프로야구(KIA-SK)(13:30·KBS SKY SPORTS), <한화-두산>(13:50·SBS 스포츠), <LG-삼성>(14:00·MBC ESPN)
AFC U17 챔피언십(한국-싱가폴)(17:50·SBS스포츠)